

오피니언

데스크시각

김미은



2층 침실, 갈색 서랍장을 열자 곱게 개켜진 아기 배내옷이 보였다. 좀 더 큰 아이가 입었을 법한 알록달록한 옷들을 눈에 띄었다. 거실에는 지역에서 가장 오래됐다는 낡은 피아노가 놓여 있었다. 뚜껑을 열고 견반을 누르자 영롱한 소리가 났다. 수십년 전 이곳에 거주했던 외국인 의사가 직접 써던 물건들이다.

1층 방들은 각종 의료기구들과 파란 눈의 의사들이 한국여성들을 치료하는 흑백 사진이 걸려 있다. 전시물마다에 담긴 해설서의 '이야기'에 귀가 솔깃해진다.

100년 된 건물이 말을 걸다

지난 10월, 담쟁이 덩굴로 뒤덮인 붉은 벽돌집, 대구시 계산동에 텁스 주택에서 만난 풍경이었다. 지금은 의료박물관으로 이용 중인 이 건물이 지어진 것은 1910년대였다. 세월은 지났지만 이곳은 사람들과 소통하며 대구의 역사와 문화를 들려주고 있었다.

지난달, 대구 골목길 투어를 다녀왔다. 출발 전부터 기대가 많았다. 골목길은 어디든지 있으니, 우리 지역도 벤치마킹할

대구 골목길 투어와 양립동

들의 탐방이 이어지고 있었다.

'동무생각'의 작곡가 박태준의 시비, '빼앗긴 들에도 볼은 오는가'의 시인 이상화 생가, 3·1 운동의 현장이었던 90계단, 국제보상운동의 거두었던 서상돈 고택까지 코스는 이어졌다. 여기에 김원일의 소설 '마당깊은 집'의 배경이 됐고, 울망풀망한 낡은 한옥과 맛집들이 감춰진 '진골목' 까지 이어지는 코스가 대구 골목길 투어의 정점이다.

'1박 2일'의 효과가 있었다고 하지만 투어를 처음 시작했던 2009년 300여명에 불과했던 탐방객이 올 10월에는 25000여명에 달하고 있다.

길을 따라 올랐다. 낡은 천정에서 세월의 두께를 그대로 느낄 수 있는 오웬기념관은 탄성을 자아냈다. 양립동 주민들의 커뮤니티센터 역할까지 하고 있는 어버紐기념관에서는 카페향이 향긋했다. 양립동과 사직공원을 둘러보며 가장 먼저 든 생각은 하드웨어는 좋은데 소프트웨어가 부족하다는 느낌이었다. 대구 골목길 투어에는 '이야기'가 있다. 어떤 스토리들은 유치하기도 해 퍼식 웃음을 나오곤 한다. 하지만 이야기가 얹혀서 소소한 재미들을 만들어내고 있었다.

양립동을 주목하는 이들은 많다. 광주시는 300억 원에 가까운 돈을 들여 양립

가을이 아름다운 이유

며, 가을빛과 가을 소리치고 어느 하나 서글프고 애달프지 않은 것이 없다."

결실에 대한 탄성도 없지는 않지만, 서운함과 허전함에 대한 감회가 더욱 애틋한 계절이다. 어찌면 일시적인 결과에 대해 탄복하기보다는 곧 다음을 예상하는 공허함을 미리 예단하는 게 우리의 심성인지도 모른다. 더욱이 다가오는 겨울을 대비한 수목의 가슴 아픈 선택이 화려하게 펼구는 단풍임을 생각하면 가을은 더욱 속연해진다.

하지만, 불가능한 장마, 염전과 태풍의 모든 과정을 거치면서 고단함과 아픔을 잠재우고 또 다시 혹한에 대비하는 계절이기에, 가을은 내면을 깊이 성찰하는 시간이기도 하다.

이쯤 되면 어김없이 생각나는 작품이 서정주의 '국화 옆에서'이다. 낙목한천(落木寒天)의 계절에 국화가 아름다운 것은 고난과 역경을 이기고 꽃을 피우기 때문이다. 그래서 가을은 성취를 위한 고난의 과정과 견디기의 철학을 잠도 잘 수 없다는 시적 표현으로 승화하는 계절이기도 하다.

더욱이 가을이 되면 수목은 채움과 결실의 미학에서 잎들을 하나 둘 대지로 둘러주는 비움의 미덕을 발휘한다. 나뭇가지 사이로는 쓸쓸한 대신 맑고 푸르기만 하늘을 더 많이 열어준다. 그 사이로 지나가는 바람은 겨울을 알리는 산산한 바람이 아니었다. 여름의 고통을 이겨낸 가을의 성숙함과 풍요로움이 진한 여운으로 남아 있는 살가운 바람이면서, 자연의 흐름 속에서 비움과 되돌림의 미학이 실현되는 공간이기도 하다.

가을의 비움은 겨울을 거치며 새로운 채움을 향한 통로이기에 '벼려야 할 것이 무엇 인지를 아는 순간부터 나무는 가장 아름답게 불탄다.'라고 시인 도종환은 노래하기도 했다. 그래서 이원수는 "불타오르듯이 빨간 단풍을 바라보는 동안은 유유관조의 멋이

온펜칼럼은 오피니언 기고 최우수작 수상자의 모임인 '온펜클럽' 회원들의 칼럼을 싣는 코너입니다.

기고

안전 광주, 시민 관심이 필요할 때



이성연

안전은 개인의 의식도 중요하지만, 사회 구성원 모두의 공감대 형성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소방방재청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겨울철 전국에서 발생한 화재건수는 1만7542건으로 전체 화재건수 4만307건의 40.5%를 차지했고, 사망자는 136명으로 전체 사망건수 278명의 48.9%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주의로 인한 화재 또한 지난해 전국을 기준으로 1만4911건으로 전체 3만6004건

의 41.4%에 달한다.

해마다 되풀이되는 각종 화재의 대부분은 안전수칙을 충실히 지키지 않는 것으로 시작된다. 현재 우리는 경제성장과 산업기술 발달로 생활이 윤택해지고 삶이 풍요로워졌지만 상대적으로 안전사고는 늘어나고 있다. 때문에 새로운 안전관리 패러다임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대두되고 있다.

우리 주변에서 발생하고 있는 대형사고들을 살펴보면 지역사회와의 무관심과 이기주의로 발생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에 따른 사회적, 경제적 손실도 늘어나고 있다.

모든 안전사고에는 반드시 원인이 있고, 그 원인을 분석하면 예방이 가능하며 예방은 관심을 통해 해결해 나가야 한다.

이에 따라 우리시는 도시경쟁력을 강화하

고, 시민들이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사회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오는 2014년 WHO 국제 안전도시 공인을 목표로 노력하고 있다.

올해 10월 말 현재 광주시의 화재발생건수는 1069건으로 16개 광역자치단체 중 제주 특별자치도 다음으로 낮았으며, 사망자는 1명으로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안전도시(Safe Community)란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합심하여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안전을 증진시키기 위해 지속적, 능동적으로 노력하는 공동체'를 의미하며, 지역 공동체 상호 협력기반 장기적인 예방프로그램 운영 등 6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그러나 무엇보다 안전에 대한 지역사회의 관심과 참여가 우선되어야 하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안전에 대한 이해를 높이

고 안전생활을 준수할 때 명실상부한 국제 안전도시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다.

요즘 TV 뉴스에서는 화기취급이 늘어나고 건조한 날씨로 인해 화재 저수가 80% 가 넘는다는 보도가 계속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전국 소방관서에서는 겨울의 문턱인 11월을 '전국 불조심 강조의 달'로 정하고, 방화환경 조성 및 다양한 안전 홍보활동을 집중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화재를 비롯한 모든 재난은 항상 우리가 살아가는 생활환경 속에 가까이 존재하고 있으며, 안전관리에 대한 자기 책임을 실현하려는 노력만이 재난으로부터 가장 안전한 도시를 만들 수 있음을 기억하자.

'지각 있는 사람은 타인의 재난으로부터 지혜를 배운다'라는 말이 있다.

'소방의 날'을 맞이하여 대구지하철 참사나 서울 우면산 산사태 등 지난날의 아픔을 삼기하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공동체의 노력이 필요할 때다.〈광주시 서부소방서장〉

예산낭비 많은 경로당 통합 등 효율적 운영 필요

경로당은 노인복지시설로 노인인구의 증가와 더불어 회원 수와 면적 등의 단순 신고 요건을 갖추면 경로당으로써 운영할 수 있게 되어 있다. 따라서 노인 여가 복지시설의 97%가 경로당이다.

또한, 등록된 회원의 이용빈도에 상관없이 자체체마다 대동소이 하지만 매월 운영비, 난방비, 양곡, 반찬 등이 지급되고 있다.

지난해 서울시 거주 65세 이상 남녀 노인

1000명을 대상으로 한 '노인 여가복지시설 활성화 방안 모색을 위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서울의 노인 10명 중 7명은 지금까지 경로당 등 노인 여가복지시설을 한 번도 이용해본 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로당에 대해서는 현재 지원 금액의 2배 이상의 질적 운영비 등의 지원을 늘려나가야 할 것이다.

두 번째로, 신규 및 통합회원에 대한 친밀감 조성을 위해서는 체육 활동 지원 예산의 인센티브 제공으로 건강증진 프로그램 및 레크리에이션 등을 활성화해야 할 것이다.

세 번째로, 장기적으로 이용률이 저조하

여 폐쇄된 경로당은 국공유 시설인 경우는 매각하여 통합된 경로당에 집중투자하여 이러한 시장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해 나가야 할 것이다. 그럼으로써 무분별한 경로당 예산낭비로 인해 저작하고 운영비 등 지원 예산의 효율적 사용으로 어르신의 여가시설 확충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이다.

▲김덕중·광주시 남구 주월동

◇ 독자투고 환영합니다

독자투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등 어떤 내용의 원고나 사진, 만화, 만평도 환영합니다. 채택된 원고는 고료를 지급합니다.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501-71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 전화 062-2200-628/팩스 062-222-4918/e메일 opinion@kwangju.co.kr

오피니언

시설

LED 등 중기 적합업종 범제화 서둘러라
〈中企〉

광주시가 LED 조명제품 등 중소기업 적합업종에 대해 법제화 추진에 나섰다. 동반성장위원회가 최근 LED 조명제품, 김치, 레미콘 등 25개 품목을 중소기업 적합업종 품목으로 선정했지만 권고 수준에 불과한데다 대기업이 반발하는 상황이어서 그 실효성을 담보할 수 없기 때문이다. 시의적절한 대응이라는 평가다.

제작업종 법제화는 광주·전남지역의 주력업종인 LED 등 조명산업과 레미콘 등 건설업, 김치·두부 등 식품산업이 대기업들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려 관련 기업들은 반기적인 입장이다.

하지만, 대기업의 반발이 만만치 않다. 이들은 고용업종 지정이 중소기업 보호를 위해 지난 2006년까지 시행했던 제도로 중소기업들이 무사안일에 빠진 사이 외국기업이 국내 시장의 60% 이상을 잠식했던 것처럼 해당 업종의 퇴보가 우려된다는 지적이다. 지식경제부에서도 대기업 입장은 응호하는 분위기다.

광주·전남 경제구조는 중소기업이 90%에 육박할 정도로 취약하다. 시는 대기업과 지경부의 주장에 절대 물러서서는 안 되며, 동반위의 권고가 반드시 법제화돼 지역경제 활로를 찾도록 해야 한다. 정부에서도 대기업-중소기업 간 동반성장정책이 '말 잔치'에 그치지 않도록 확고한 의지를 보여줘야 할 것이다.

광주·전남 경제구조는 중소기업이 90%에 육박할 정도로 취약하다. 시는 대기업과 지경부의 주장에 절대 물러서서는 안 되며, 동반위의 권고가 반드시 법제화돼 지역경제 활로를 찾도록 해야 한다.

하지만, 대기업의 반발이 만만치 않다. 이들은 고용업종 지정이 중소기업 보호를 위해 지난 2006년까지 시행했던 제도로 중소기업들이 무사안일에 빠진 사이 외국기업이 국내 시장의 60% 이상을 잠식했던 것처럼 해당 업종의 퇴보가 우려된다는 지적이다. 지식경제부에서도 대기업 입장은 응호하는 분위기다.

하지만, 대기업의 반발이 만만치 않다. 이들은 고용업종 지정이 중소기업 보호를 위해 지난 2006년까지 시행했던 제도로 중소기업들이 무사안일에 빠진 사이 외국기업이 국내 시장의 60% 이상을 잠식했던 것처럼 해당 업종의 퇴보가 우려된다는 지적이다. 지식경제부에서도 대기업 입장은 응호하는 분위기다.

서울봄서비스 혜택을 보는 독거노인은 1만7000명 뿐이며, 나머지 10만여 명은 사실상 방치돼 있는 실정이다.

독거노인들은 삶 자체가 고통의 연속이다. 우선 경제적인 어려움이 크다. 기초노령연금제 시행으로 전체 노인의 69%가 월 9만 원을 받고 있지만 다른 소득이 없는 독거노인들에게는 턱없이 부족하다.

고독과 질병도 문제다. 말동무 없이 하루 종일 TV를 보거나 혼자서 쓰러져 주변을 산책하는 것이 고작이다. 아파도 돌봐줄 사람은 고사하고, 병원조차 쉽게 갈 수 없다.

정부와 지자체의 적극적인 대책과 사회적 관심이 시급한 이유이다. 정부는 다양한 의료혜택과 일자리 제공 등을 통해 질병과 빈곤에서 벗어나게 해 주어야 한다.

문제는 독거노인 대부분이 질병과 빈곤에 시달리고 있지만 이들에 대한 대민서비스는 매우 열악하다는 점이다. 독거노인과 직접 대면하고 관리하는 봄봄서비스 인력 및 예산을 확충하고, 인적 네트워크와 지역단위 공동생활 등을 통해 삶의 힘을 불어넣어야 할 것이다.

無等鼓

공자(孔子)의 제자인 증삼(曾參)은 효행으로 유명했다. 하루는 그와 이를 같은 사람이 살인을 저지르게 되었는데, 어떤 사람이 증삼의 어머니에게 가서 "당신의 아들이 살인했소"라고 말했다.

증삼의 어머니는 "내 아들이 살인할 리가 없소"라며 대연하게 길을 계속했다. 얼마 안 있어 또 한 사람이 와서 "증삼이 살인했소"라고 하였으나 증삼의 어머니는 여전히 길을 계속했다. 조금 있다가 또 한 사람이 증삼이 살인했다고 하자, 증삼이 살인했다고 하며, 증삼의 어머니가 뒤에서 벽을 던지고 담을 넘어뛰어갔다.

전국책(戰國策)에 실려있는 투자(投射)라는 고사상으로, 여러 번 말을 들으면 골이 드는 말이다.

옛 중국의 국어(國語) 주어(周語)라는 책에는 기원전 524년, 화폐개혁을 단행한 주나라 경왕(景王)의 이야기가 나온다. 소액의 돈이 없어지는 바람에 큰 손해를 입은 백성들은 경왕을 원망했지만, 왕은 남은 동전을 모아 임청나에게 큰 타령(大頌)과 같은 동영상을 보면 먼저 그 아이디어에 감탄하게 되고, 일부 내용에도 지나친 느낌은 있지만 머리를 끄적이게 하는 구절이 있지 않은 것도 사실이다.

국민과 여론, 그리고 역사를 두려워 한다면 독사람의 말이 쇠를 녹이기 전에 서둘러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다.

/총행기 경기부처장 redplane@kwangju.co.kr

光州日報

회장 金鐘宅 사장·발행·편집·인쇄인 柳濟喆 논설주간 申港榮 편집국장 曹庚完

1952년 4월 20일 创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기1(일간)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우편번호 501-711)

대표전화 222-8111~2200-551 〈자자·국(구)독신청·배달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내내 222-4918 문화생활부 2200-661 〈F A X 222-8005 〈F A X 222-0195〉

면집부 2200-649 여론매체부 2200-621 〈F A X 227-9600 〈F A X 220-651〉

정경부 2200-612 체육팀 22